

# 현대미술 지원을 위한 플락(Frac)의 전략적 운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rategic Operation of Frac to Support Modern Art

정종효<sup>1</sup>

Jong-Hyo Cheong<sup>1</sup>

### 요 약

국내외에는 현대미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있고, 국내에 있는 기관과 단체 중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메세나협회 그리고 각 시도의 문화재단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지원제도는 노하우를 쌓으면서 개선과 보완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지만 지원제도 중에 작가의 창작활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작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과 보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외의 한 사례로 프랑스 정부는 현대미술을 지원하기 위해 1982년부터 Frac을 각 지역에 전략적으로 설립하여 현대미술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전국의 총 23개의 Frac은 많은 작가로부터 수집된 작품을 회사, 기관, 병원, 학교 등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더구나 전국의 Frac은 상호 긴밀한 네트워크 관계를 유지하고 정보교환과 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교류까지 확대하고 있다. 2005년에는 Platform을 설립하고 모든 Frac의 중심에서 정보의 공유와 운영을 위한 브릿지 역할을 더하면서 현대미술의 지원활동은 발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주조와 전략적 운영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국내의 유사 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주제어: 플락, 플랫폼, 현대미술지원, 작가지원, 미술정보, 미술교육

### Abstract

The support system in Korea is an institution to support modern art, including the Korean Culture and Art Council, the Art Management Support Center, the Messina Association, and the Cultural Foundation of each city, which can include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s Art Bank. The works purchased, one of the support system,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 author's creation should be filled with water burials over the years, and there should be a way to make practical use of them, rather than just buying and preserving them. In case of abroad, the French government has strategically established FRAC in each region to support modern art since 1982. A total of 23 FRACs link works collected from many artists have been used to develop and efficiently utilize programs with companies, institutions, hospitals and so on. Moreover, FRACs across the country maintain close network relations, provide mutual support for their works through inform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are expanding overseas exchanges. In 2005, the support activities of modern art are evolving with the creation of a new platform and the addition of the role as a bridge for the sharing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at the center of all FRACs. The structure and the cause are to be analyzed.

Keyword : Frac, Platform, Support for Contemporary, Support for Artist, Art Information, Art Education

<sup>1</sup> Busan Museum of Art, Busan, Korea [Chief curator]  
e-mail : dotoriart@nate.com

Received(July 30, 2019), Revised(October 19, 2019), Accepted(December 9, 2019)

## 1. 서론

현대미술을 포함한 문화예술을 정책적으로 선진화시키고 산업화하기 위해 세계 각 국가에서는 예술가들에게 직간접적인 지원제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영국, 프랑스, 독일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작가활동에 대한 개인적 의식이나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다른 미국의 경우 국가지원제도는 열악한 편으로 평가 받는다 [1]. 한국의 경우 문화예술 지원의 대표적인 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도입으로 인해 그 체계는 영국과 유사하나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중심적인 프랑스의 거버넌스 체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현대미술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몇몇 기구를 들자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운영의 미술은행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 사립성격의 재단들도 포함된다.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프로젝트나 장르별로 공모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대상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구 자체에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경우는 드물다. 예술인복지법의 경우에는 창작활동을 이어가는 예술인들을 위한 법률로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문화예술의 향유자가 아닌 실현자를 위한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효력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3].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은행제도는 작품구입을 통해 작가 지원이 이루어지며 통상적으로 현장구입, 공모구입, 추천구입의 세 가지 방법으로 각각의 위원회를 거쳐 구입되지만 국내작가에게 한정되어있고 작품가격과 사이즈의 기준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작품의 수준을 높이는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미술은행에서 구입된 작품은 공공기관이나 사설 전시장 등 대여요청이 있을 경우 대여하는 것이 사업목적이다. 연구기능의 공공미술관에서 작품을 수집하는 목적은 다른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작품 구입을 통해 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연구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은 설립된 이후 구입방법, 대상, 조직 그리고 운영방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롤모델들이 제시되어 왔고 프랑스 플락의 운영과 제도에 관해서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왔다. 따라서 국립현대 미술관의 미술은행과 기타 작품을 구입하고 있는 기관들의 설립과정에는 플락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시대상황이 변화하고 이에 맞는 효율적 지원을 위해 대한 발전적인 방향전환도 고민과 정책수정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플락의 운영변화들은 국내의 지원제도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연구이며, 플락이 실행하고 있는 현대미술지원을 위한 전략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나 재단법인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은행이 향후 작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어떤 방향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미래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번 연구는 프랑스 전역에 있는 총23개의 플락 가운데 대표적으로 플락그랜드라제하우즈데프랑스(Frac Grand Large-Hauts-de-France), 플락일드프랑

스(Frac Ile-de-France)와 플락 전체의 정보공유와 프로그램 유통을 위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파리의 플랫폼(Platform)을 방문하여 대표자를 포함한 관계자의 인터뷰를 거쳤고, 플락알자스(Frac Alsace)와 플락부르고뉴(Frac Bourgogne)의 담당자로부터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정보와 제공받는 보고서와 자료연구를 토대로 이루어 졌다.

## 2. 플락(Frac)의 설립 목적과 조직

### 2.1 전략적 설립 목적

문화예술지원제도에 있어서 프랑스의 현대미술을 위한 지원제도는 정부 주도로 상공업체세나협회 지원이나 레지옹문화사무국(DRAC)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교역할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연합적인 상호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4]. 프랑스 플락은 1980년대부터 현대미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주도하에 각 지방의회의 협의에 의한 정책으로 설립되기 시작했고 공식 명칭은 FRAC(Fonds Régionaux d'Art Contemporain)이며 영문표기는 Regional Collections of Contemporary Art - FRAC)이다.

1980년대 프랑스의 경제, 사회와 더불어 연극, 영화, 미술 등 문화예술도 수도인 파리에 집중되어 있었고, 정부는 문화예술의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미술지원 기구가 플락이다. 이를 개선하고 현대미술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와 의회의 협의를 거쳐 기구 설립에 합의하였고, 이후 23개의 플락을 점진적으로 설립하게 되었다. 당시 프랑스의 지방정부는 총23개로 나누어져 있었고 각 지역에 한 개씩의 플락을 설립해 현재까지 23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현대미술을 지원하기 위한 플락 연극이나 영화 등 공연 예술에 비해 순수미술 분야의 활동과 지원이 열악함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당시 공연예술지원 단체는 전국에 70여개에 달했지만 현대미술을 지원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는 없었다.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품을 구입하고 미술문화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전시를 통해 활성화 시키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따라서 플락의 위치는 시내 중심부가 아닌 외각 지역에 위치하는 지리적 검토도 엄격히 이루어 졌다. 각 지역의 현대미술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플락은 세 가지의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는 현대미술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목표이다. 주로 작가의 작품구입을 통해 작가의 경제적인 지원과 이로 인해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전념하게 한다. 두 번째는 미술작품의 구입은 미래의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작가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수한 작품을 확보한다는 개념이 수반되고 수집된 작품들을 통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목적을 가진다. 세 번째는 각 지역의 미술 향유의 불모지를 분석하고 지원하는 전시기획을 통해 작품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플락의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위치는 미술향유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평소에는 작품들을 잘 볼 수 없는 곳에 전시되며 학교나 회사는 물론이고 교도소나 병원 등 사회 각 요소에 필요성에 근거하여 전시가 보급된다. 플락의 유연성과 실험 정신은 다양한 방문객의 사정에 적합한 현대 미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이니셔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그들의 접근 방식을 끊임없이 연구한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작가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플락의 미술 수용력을 자극하고 오늘날 세상의 예술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플락이 수행하는 외부 전시기획 또는 수많은 미술 프로젝트들은 내부에서 테이블 위에서 개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개최 될 현장과 예상되는 관람객의 유형 분석을 통해 수립된다. 그 대부분은 참여형 프로젝트로 수집된 미술작품을 기반으로 하며 대화와 공유를 촉진하고 역사적인 예술적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접근하기 어려운 대중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홍보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순수예술 지원과 육성을 위한 조직들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까지 제약이 따른다는 비판적 평가와 비교되는 정책이며, 이러한 부작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한 한국의 현실과 플락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5].

## 2.2 독립적인 조직구조

플락의 설립단계는 신중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운영방향 설정과 조직구성에 있어서 국가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제도화 되지 않고 긴밀한 협의 하에 설립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금의 운영에 있어 23개의 플락이 상호 공유와 협업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순항하고 있는 이유이다. 또 상호관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플랫폼(Platform)을 설립하고 국내외의 창구역할과 브릿지 역할 등을 통해 소통, 교류,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각 플락의 운영조직은 작품구입과 전시기획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디렉터와 큐레이터 그리고 일반 직원의 인력을 두고 있으며 인력 규모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에 상위하는 기구로 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작품구입과 전시방향의 설정을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기구이다. 모든 플락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작품선정과 전시 방향뿐만 아니라 어떤 정체성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설정도 해당 디렉터와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소속 지방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운영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작품의 구입범위는 지역작가를 포함해 세계 어느 작가이든 구입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적 영역에 한계를 두지 않고 장르의 구분이 없으나 플락의 정체성에 맞고 뛰어난 작품을 대상으로 신중하고 엄격한 검토과정을 거친다. 작품 수집대상을 자국 작가를 포함해 외국 작가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은 우수하고 전망 있는 작가로 평가 받는 작품은 그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일찍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작품들은 전시기획을 통해 대중들의 감성을 다양하게 육성하여 현대미술에 접근하도록 만들고 있다. 현재 23개 플락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작품

은 총 35,000여점이며 국적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6,000여명의 작가가 이에 해당한다. 기획전시는 대부분 수집한 작품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는데, 2018년 플락의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전역에서 667개의 전시와 3,557개의 예술문화교육을 실행했으며 이는 수많은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업으로 전개된 결과이다.

### 2.3 플락의 중심에 있는 플랫폼(Platform)

프랑스의 전국에 골고루 분포된 플락은 각각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심에 있는 플랫폼(Platform)은 2005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전국의 플락과 수직관계에 있지 않고 수평관계에서 개발과 협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플락의 네트워크를 탄탄히 하기 위해 플랫폼은 세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전문적으로 분석된 솔루션의 공유형 통합으로 대중들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모든 플락의 중심적 위치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부와의 가교역할을 통해 상시 크고 작은 정보 공유로 플락의 활동에 효율성을 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국내와 국외의 국제적인 활동과 교류를 위한 창구역할을 한다. 설립초기의 국내 활동에서 늘어나는 소장품의 양적 질적 자원을 활용하고 인력의 노하우를 국제적인 활동으로 전환하여 위상을 높여 가고 있다. 세 번째는 유형의 유산과 무형의 유산을 축적하기 위해 국내외의 수집 프로젝트를 프로모션하고 있다. 플락이 수집하고 있는 작품 중에 국내작가와 해외작가의 비율이 각각 50% 정도씩 해외 작가의 작품까지 수집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중요한 것은 유산적 개념으로 작품 수집을 신중하게 접근하여 수준 높은 작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현재 플락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의 수준이 대단하다는 것으로 입증된다. 더구나 플랫폼은 해외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 2003년부터 Frac du Grand Est가 주도하고 Platform이 조직한 프로젝트는 이탈리아 (2002), 폴란드 (2003), 스페인과 영국 (2004), 독일과 슬로바키아 (2005), 이스라엘과 체코 (2006), 아르헨티나, 이탈리아와 루마니아 (2007), 벨기에와 리투아니아 (2008), 크로아티아 (2007, 2012)에서 메이저컬렉션 프로젝트를 조직하였다. 프랑스 각 지역에서 Carte Blanche를 작가들에게 주는 일련의 전시회도 개최됐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활동에 대한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 퐁피두센터와 함께 Frac New Architectures라는 제목의 순회 전시회가 공동으로 기획도 진행되었다. 2016년과 2017년에 플랫폼의 해외 활동은 싱가포르 국립 박물관과 공동으로 기획 한 플락의 작품 셀렉션인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전시회를 통해 신체적, 심리적 경험과 관련된 예술적 장치에 중점을 둔 내용이 함께 진행되었다. 이 전시회는 송은아트 스페이스(서울), 태국의 BACC(방콕)에서 연이어 열렸고 소장 작품을 통해 국제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2019년부터 플락의 네트워크는 아르헨티나와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2023년까지 지속되는 장기적인 교류 계획도 연결시키고 있고, 아프리카와 갱신된 파트너십을 표하기 위해 프랑스 전역에 걸친 거대한 규모의 이니셔티브를 행하기 위해 플락은 아프리카 현대 미술 작

품을 선보이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방대하고 높은 수준의 소장 작품은 예술자로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예술가와 예술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기초예술분야를 육성하고 순수예술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인해 실질적으로 국가의 문화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들은 다양한 연구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 2.4 지역별 플락의 특성

전술한 바와 같이 플락은 각각의 특성화를 개발하고 이는 정체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적 특수성과의 관련성, 소장 작품 수집의 차별성, 소유 건물의 디자인 또는 역사에서 오는 특수성,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수행하는 방식과 내용 등에서 다른 플락과 상충되는 부분을 피하고 있다. 각각의 정체성은 콘텐츠의 상호교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플락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23개의 플락 중에 특수성이 강화된 대표적인 몇 곳을 예로 든다.

Frac Alsace는 프랑스 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500여명의 작가를 포함하는 1,000여점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자연경관, 인체, 영토 그리고 언어에 초점을 맞춘 정체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작품수집도 시작되었다. 예술적인 에코시스템과 모노그래픽 사이의 차이점을 구축하여 전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플락의 정원을 이용한 수년에 걸친 장기적인 프로젝트도 추진하는 등 전시의 협업행사를 증진하고 있다. Académie de Strasbourg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술과 문화교육에서 야심찬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리적으로 국경을 끼고 있는 독일과의 교류가 많으며 2020년 가을에는 베를린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작가 최정문의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Frac Île-de-France는 1,700여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 플락은 여행 또는 쇼와 같은 주제의 매우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선호한다. 예를 들면 매년 이어가는 전시 중에 알파벳 26자 중 하나를 지정하고, 지정된 알파벳과 작가의 이름 첫 글자가 동일한 작가를 선정하여 전시에 참여하는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D’가 선택되었고 ‘D’는 플락의 내부에서 결정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투표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제일 많이 선호하는 알파벳으로 선정되었다. 이름 첫 글자가 ‘D’에 해당하는 작가를 선정해 전시를 진행하게 되는데 결과만의 전시보다 이런 진행 과정에 참여를 통해 전시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의식을 가지게 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Frac Île-de-France의 공간은 도심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 안에 있다. 18세기 성이 자리하고 있던 곳으로 화재로 인해 소실되고, 이후 공원이 방치되어 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물을 다시 세워 외부디자인은 베니스비엔날레에 참가한 작가 2명을 참여시켜 스테인 조각을 입힌 특이한 건물을 유지하고 있으며 플락의 활성화로 인해 공원을 재생시키는데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인정받고 있다.

FRAC Auvergne은 1985년에 창립되었으며 2004년 이후 이미지를 포함해 사진 및 영화의 역사로 연결되어 작품을 수집을 이어가고 정체성으로 이어졌다. 1,000여 점의 작품은 주어진 콘셉트로 지

속되어졌으며 일관된 접근 방식을 통해 예술적인 의제에 큰 영향을 던져주고 있다. 2021년 새로운 위치로 이전할 계획으로 주어진 높은 수준의 콘셉트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8년에는 내부의 4개 전시와 24개의 외부 전시를 개최하고 학교와의 프로젝트 수를 늘여가고 있다. 지역파트너와 전시와 워크숍에 필요한 가이드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컬렉션의 작품 전시를 개최해 대중들의 현대미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작용한다.

Frac Bretagne은 플락 중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컬렉션중의 하나로 600명 이상의 작가에 의한 5,000점 이상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창립 이래로 기존 예술가와 신흥 예술가 사이 그리고 다른 예술 장면 사이에서 세대 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일관성과 열린 마음의 아이디어를 옹호했다. 이 컬렉션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Frac Bretagne는 광범위한 홍보 및 교육 이니셔티브의 기초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또한 지역 파트너가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환영하고 참여하며 지원하고 있다. 그 예로, 2018년 Les Ambassadeurs는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로 플락에서 선정한 학생, 노인, 회사 직원과 공무원을 팀으로 꾸려 Frac Bretagne의 수집품 전시의 큐레이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일반인들이 전시기획자가 된다는 것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참여자들은 최고의 경험으로 기억에 남는 일을 실행한 것이다. 예술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지역은 예술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이 프로젝트에 내재되어 있다. 각 팀은 전시회의 재료 상태를 평가하고 다른 관점을 반영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를 고안하여 구현하는 과정과를 체험하는 새로운 시도였다.

Frac Centre-Val de Loire의 특징은 1990년대부터 예술과 건축과의 관계 속에서 끈임 없는 연구를 통해 독특한 정체성을 구축했다. 20,000 개의 작품, 900 개의 건축 모델과 17,000 개가 넘는 드로잉을 갖춘 이 컬렉션은 1960 년대의 건축적 특징, 1970 년대의 급진적 유토피아적 작품, 1980 년대 파괴적 형태의 건축과 도시와 예술가의 관계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한다. 대중들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봉사 활동도 개발하고 있는데 플락과 주민, 지역, 예술 프로젝트 사이의 관계적 역동성, 공공 문화 홍보는 여러 경로를 기반으로 참여형의 접근 방식을 구현한다. 방문객들은 가이드투어와 워크숍과 강의를 통해 전시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 부문 전문가 및 장애인과 협력하고 있는 전문가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등 특별한 서비스를 구성한다. 30년 동안 전시와 문화 활동을 조직하며 지역 간의 옹골진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학교와 개인 모두를 위해 컬렉션 한 작품을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누구나 쉽게 작품을 즐길 수 있게 한다. 별도의 커미셔너 영입을 위한계획을 통해 공동 큐레이터의 원칙에 따라 참가자들은 전시회를 디자인하고 일상생활 공간의 일부가 될 작품을 선택한다. 2019년에는 Nos années de solitude라는 제목의 Biennale d' Architecture d' Orléans의 두 번째 버전이 출시되었다. 유럽, 중동 및 라틴 아메리카의 예술 현상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현대 세계의 고독'을 탐구하고 있다.

FRAC CORSE는 최초의 국가 및 유럽 네트워크를 시작했다. 584개의 작품으로 구성된 국제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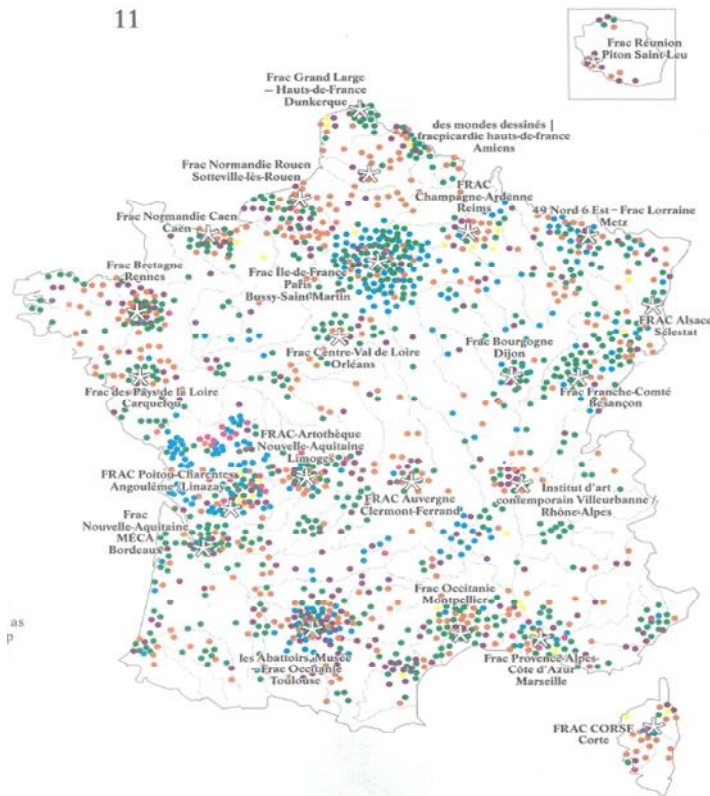
대 미술 작품을 컬렉션하고 있는데 Palais Fesch Musée des Beaux-Arts (Fesch Museum of Fine Arts)에 이어 Corsica에서 두 번째로 큰 컬렉션이다. 이 컬렉션은 Arte Povera, 개념미술과 미니멀리즘과 같은 역사적 움직임을 기반 한다. 1980 년대의 큰 규모의 작품이 포함되며 미래를 전망하는 접근 방식으로 운영된다. 플락은 예술과 자연의 관계, 환경 문제에 대한 폭 넓은 가시성을 제공하는 환경 내에서 수집 및 예술 프로젝트를 개발하며, 역사와 현재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생성하는 영토 개념과 정체성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광범위한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전시회, 작품 발표와 봉사 활동을 조직하며 Corsica 전역에서 작품의 가시성을 홍보하고 있다. 플락의 공공 봉사 활동 팀은 어린 자녀부터 노인 보호 주택 거주자까지 다양한 관객을 위해 결성된 창의적인 워크숍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현대 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작품을 바탕으로 강자와 토론을 진행하고 특히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 교류 및 파트너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Corsica의 젊은 작가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섬을 설계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거나 봉사 활동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레지던시를 조직하며, 그 중 일부는 프랑스 교육부, 훈련 센터 및 다양한 지방 당국, 기관과 코르시카 내외간의 파트너십의 워크숍 형태로 진행된다.

그 외의 기타 지역에 있는 플락에 대한 특성을 간단하게 기술하자면 Frac Bourgogne은 1982년에 설립해 현대미술작품만을 수집하는데 지역이나 국가차원이 아니라 국제적인 인지도에 주목하고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FRAC Champagne-Ardenne는 1984년에 설립해 미술과 삶, 미술과 만남, 미술과 논리 등을 주제로 미술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고 대상은 소수민족을 포함해 다양하게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Frac Franche-Comte는 시간, 기억, 공간의 변화, 엔트로피 또는 비경험의 경험이라는 시간 개념을 탐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운드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들을 풀어 나간다. FRAC-Artotheque Nouvelle-Aquitaine는 모노그래픽 중심의 작품들을 수용하고 있고 모순과 대립의 변증법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으며 작품의 대여도 국가기관과 개인까지도 확대하고 있다. 49 Nord6Est-Frac Lorraine은 무용과 같은 공연예술 공간과 영화관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메커니즘과 아카이브의 카테고리를 탐색하는 작품들에 집중하고 있다. Frac Normandie Caen은 추상회화, 건축, 예술이 현대사회와 역사속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고민하고 수녀원이었던 건물을 건축가가 개조하여 대단한 유산 가치를 지닌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Frac Normandie Rouen는 2,600점이 넘는 작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체, 환경 그리고 새로운 이슈에 대한 주제로 지속되고 있고 영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Frac Nouvelle-Aquitaine MECA는 1929년 작품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1,200점 이상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고 사진, 개념미술, 다다이즘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작품들을 수집하고 있다. Frac Occitanie Montpellier은 현대미술에 내제된 다양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자 하고, les Abattoirs Musée-Frac Occitanie Toulouse는 프랑스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공식적인 미술관이기도 하다. Frac des Pays de la Loire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미술의 장면 포착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des

mondes dessins/frac picardie hauts-de-france는 미술이 산업발달에 따른 재료의 기술적 진보로 변화되어 온 과정에 집착하고 이를 현실적인 체험을 통해 감성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FRAC Poitou-Charentes는 작가의 위치와 미술의 사회적 효율성을 조사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미술의 사회성을 탐구하고 있다. Frac Provence-Alpes-Cote d'Azur는 현대적인 표현방식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고, Frac Reunion은 인도양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요인들과 문명현상, 원점과 교차점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Institut d'art contemporain Villeurbanne/Rhone-Alpes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의 작품을 수집하고 젊은 작가들의 작품수집과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23개의 플락은 특징은 지역적 관점, 수집의 내용, 기획의 내용, 대상들의 특징, 개념적 설정, 지원의 방식 등을 통해 공생함과 동시에 각각의 정체성으로 유지하고 있다.

### 3. 플락의 운영

플락의 운영은 지역과 정부로부터 극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플락의 상호관계에서는 공유와 유연한 협업관계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운영에 있어 크게 전시기획 운영과 소장품 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림 1]은 프랑스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플락의 위치와 2018년 한 해 동안 운영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667개의 전시와 3,557개의 예술문화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파리 외에 각 시의 중심부보다 도시 외곽에서 골고루 실행되었다. 이는 미술문화의 불모지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현대미술의 접근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플락의 설립취지와 부합하는 부분이다. 작품대여를 통해 실행된 전시, 교육시설에서의 전시 기획, 문화유산 및 사회문화 시설에서 전시, 인터넷 전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전시회와 프로젝트, 일반 회사에서의 전시,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 등이 해당되며 병원과 학교, 교도소 등 사회 공공영역의 시설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그 외에서 3,559건의 워크숍과 예술가방문 문화봉사활동 작가스튜디오 방문 교육관련 프로그램도 프랑스 전역에서 실행한 결과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플락이 해당하는 각 지역에서 연간 평균 5개의 전시와 25개의 외부전시를 추진하는 셈이다. 실험적인 창작에 중점을 둔 플락은 미술문화가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포함하여 가장 광범위한 방문 가능한 대상을 수용하기 위해 많은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폐허 공간을 개조하여 전시공간으로 만들고, 차량과 같은 이동수단을 개조하여 이동이 가능한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실행하고 있다. 소장 작품의 운영에 있어서는 총35,000여점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고 세계 각 대륙의 작가들을 대상으로 1960년대 이후의 제작된 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이 수집대상이다. 모든 플락에서는 각각의 공간과 정체성에 명확한 전망과 비전에 부합하는 작품들이 선정되며 디렉터와 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비평가, 미술관 큐레이터, 디렉터, 전시커미셔너 그리고 컬렉터 등도 해당되며 프랑스인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인도 대상에 포함한다.



[그림 1] 플락의 지역별 위치와 전시 및 프로그램 개최 분표 (2018 FRAC 보고서)

[Fig. 1] Location and Program Operating Locations of Frac (2018 Report of Frac)

현재 소장품은 프랑스작가 50%와 해외작가 50%, 성비로는 여성 33% 남성 67% 정도의 비율이며 컬렉션 작품들은 다양한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국제적이고 수준 높은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작품의 구입 실행은 아트마켓의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되는데 구입대상에서 글로벌화 된 작품을 표적 대상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문화산업의 장기적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플락의 운영은 진보적이고, 전략적이고, 융합적이고, 장기적인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 3.1 플락의 대표적인 운영 사례

Frac Grand Large-Hauts-de-France는 프랑스의 북쪽의 도시 Dunkerque시에 위치해 있고 파리로 부터 약 3시간 거리에 접근 할 수 있다. 1982년 프랑스 정부에서 국가적인 정책으로 설립된 플락 중의 하나로 1996년까지 조선축조 공장이었던 현재의 건물을 활용하여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로 현재의 공간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후 2016년에는 도시의 합병으로 인해 플락의 명칭은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미술인프라가 약한 지역에서 내부와 외부로 통해 다양한 규모의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운영비는 연간 38억 정도이며 작품수집예산은 연간 약 3억 정도로

현재 1,800여점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예산은 시비와 국비 각각 50% 씩 매칭을 지원받고 있다. 작품수집대상은 지역을 포함한 프랑스 전역의 작가 그리고 해외의 작가까지 포함하고 있어 지역 나아가 국가 간의 소통을 위해 개방적인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국제교류도 벨기에의 미술관과 관람객교환 프로그램을 추진, 2019년 타이완의 타이페이미술관에서도 전시를 진행해 전시, 소장품,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고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림 2] Frac Grand Large-Hauts-de-France의 외부(좌)와 구 건물 내부(우)

[Fig. 2] The interior of old building(R) and the Exterior of a building(L) of Frac Grand Large-Hauts-de-France

각 지역의 플락은 건축에서도 각각의 특징들을 알 수 있는데 Frac Grand Large-Hauts-de-France도 역시 특징적인 면이 있다. 배를 축소하던 건물로 내부를 정비하고 외부의 안정성을 보완하였다. 원형건물과 동일한 모양의 신축건물을 옆에 쌍둥이 형으로 2013년에 완성하였는데 버려진 공간을 재생하고 도시의 특징인 조선업의 이미지를 역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구 건물을 개조하여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보존만 할 것인가를 고민하였고 건축디자이너와 전문가들의 폭 넓은 논의 끝에 동일한 또 하나의 건물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그림 2]의 외쪽 사진의 오른쪽 신축된 건물은 왼쪽 구 건축물과 규모와 구조 그리고 사용된 자재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하고 구조의 테크닉적인 부분은 현대화하여 안정성을 기했다.

공간의 활용에 있어서는 구 건물과 신 건물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누어진다. 구 건물은 건물의 보존을 위해 가급적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시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내부는 텅 빈 단층구조이지만 천정 높이가 약30미터 이상의 펜타하우스 형의 건물이다. 전시가 진행된 시에는 건물의 중간에 설치된 회랑을 통해 전시를 관람할 수 있고 공간의 바닥에는 가능한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시가 없을 시에는 비어 있는 상태로 관리된다. 오른쪽 신건물의 경우는 반은 전시목적의 공간과 교육실, 사무실 등으로 운영되며 나머지 반은 수장고로 활용할 수 있게

내부구조는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완성하였다. 전체적인 건축의 이미지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온실의 느낌을 외벽의 투명한 자재를 활용하여 이미지 전달을 강조하였다. 대부분의 전시는 신관에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특별한 전시의 경우에만 구관과 같이 활용하게 된다. 2019년부터 트리엔날레 형식의 대형 전시가 시작되어 두 개의 건물 공간을 모두 사용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은 대중이 현대미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시와 프로그램들을 구성하며 내부 기획과 외부와의 다양한 협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협업 대상들은 주위에 있는 미술관, 학교, 갤러리 등을 포함해 사회 각 분야의 공사립예술단체나 기관과 진행할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작가의 아틀리에와 소규모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가능한 협업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으려한다. 2013년에는 신축건물이 완공되면서 새로운 공간에서 주위의 미술관 학예사들과 협력하여 기획한 경우가 있었고, 2017년에도 시 소속의 모든 학예사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추진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디자인의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 플락에서는 디자인의 전시와 프로그램에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지역민을 위해 디자인과 관련된 전시와 프로젝트를 통해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 3.2 전시 기획의 협업 사례

2019년 11월에 Lille 시의 복합문화공간에 진행된 교육형 전시 ‘색깔COULEURS’는 1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만을 위한 전시를 진행하였다. 이 전시의 작품은 입체, 평면, 설치, 영상, 텍스타일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전시되었고 재료에 있어서도 철, 고무, 종이, 천, 돌조각 등 아동의 오감을 빠짐없이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의 작품을 전시 되었다. 작품의 성격은 평면작품을 포함한 입체 작품들로 원색 계열의 강한 색조와 크고 작은 사이즈의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시각적으로 매우 강하며 대부분 작품의 질감을 독특하게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집중력이 약한 연령대인 유아들의 감각을 의식하고 감각을 자극시킴으로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된 기획이다. 그러나 작품을 부담 없이 만지고, 듣고, 보고, 올라가기 위한 구조와 재질들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만지거나 올라가는 것 등에 대한 금지해야 할 작품에 대해서는 행위를 제한하는 관람에 대한 매너를 교육하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어 감성육성교육과 관람예절교육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진 전시다. [그림 3]은 각 작품의 특징에 따라 유아에게 전달해야 할 메시지를 그래픽으로 인지하기 쉽게 디자인하여 전달하고 있다. 작품의 기법과 재료의 성향에 따라 관람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 이 전시를 위해서 Frac Grand Large-Hauts-de-France는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우선 담당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는 공간의 담당자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전시의 주제와 목적 등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다. 그리고 작품, 운송, 설치, 공간디자인 그리고 테크니션까지 필요한 요소는 Frac Grand Large-Hauts-de-France에서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고, 이 전시의 성립 과정에서 유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목적의 돌출과 안정화된

지원 시스템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전시다.



[그림 3] 'COULEURS'의 전시광경(좌)과 작품상 주의 메시지 그래픽(우)

[Fig. 3] An exhibition of colors(L) and A cautionary message about a ar work(R)

#### 4. 결론

1990년대 한국정부의 현대미술에 대한 지원방식은 거버넌스형식에서 2000년대에는 장르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고 창작지원, 신진미술가지원, 다원예술지원, 융복합 지원이 증가하면서 작품제작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7]. 2010년 이후에는 '시각예술' 사업지원이 시행된 이후 융복합 공동기획 프로젝트 지원으로 이어졌고 불과 20년 사이에 정권과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지원정책도 잦은 변화가 거듭되어 장기적인 전략의 지속적인 실행의 정책이 필요하다. 약 80여개에 이르는 한국의 문화예술기관은 운영 주체는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특성이 달라지고 효율성이 미치는 영향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운영조직은 정부직영, 공기업위탁, 법인위탁으로 구분되며 그 효율성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법인에 위탁할 경우에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8].

본 논문을 통해 한국의 현대미술 지원을 위한 기관과 조직이 보다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지원활동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몇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먼저 전술한바와 같이 플락의 운영은 그들만의 조직과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플락의 설립당시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목적과 운영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정체성 유지와 효율성 높은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는 유연하고 자주적인 구조와 진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을 지속적인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적 구조적으로 주어진 범주 내에서 거치지 않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과 공간적 형식적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셋째는 광범위한 대중들의 현대미술에 대한 인식을 끌어 올리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술작품의 수집 내용은 언제나 플락 운영과 미래에 대한 민감한 초점에 맞추어져 있고, 대중의 시선에 맞추어 내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대중의 시선과 의식을 끌어올리는 교육적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넷째는 23개 플락의 운영에 관해서 완벽한 독립적인 운영방식을 부여하여 정체성과 운영방식을 차별화함과 동시에 상시 타 지역의 플락과의 공유관계를 통해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융합방식이다. 다섯째는 작품수집에서 작가지원의 목적을 넘어 위대한 문화유산의 확보라는 선진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과 엄격한 토론과정을 통해서 정체성에 맞는 작품을 선택하고 그 범주는 지역적 국가적 한계를 두지 않고 수준과 정체성이 기준이 된다. 진보적인 플락의 운영방식을 통해 현대미술의 지원정책의 개념을 복합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포괄적인 수용과 배급방식을 이어가야 하는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 한국현대미술이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는 지금, 한국만의 독창적인 문화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전략화해야 한국의 현대미술을 세계 속에 소통시킬 수 있을 것이다 [9].

## References

- [1] W. J. Chang and D. H. Lee “Shared Governance for the Art and Culture - US Public Arts Agencies and Cultural Foundations”, *Review of Cultural and Economy*, vol. 21, no. 1, April 2018, pp. 63-83.
- [2] I. S. Jung, “The Ideology and Reality of Arm's Length Principle in Culture/Arts Funding Policy: Focused on Blacklist Case”,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vol. 54, no. 3, July 2017, pp. 7-40, doi: 10.22174/jcr.2017.54.3.7.
- [3] S. Y. Jung, “A Study on Problem Factors of Classical Voice Artists Welfare in Korea and Implications of the Italian INPS”, *Journal of Digital Art Engineering & Multimedia* Vol. 5, No. 2, December 2018, pp. 113-120, doi: 10.29056/idaem.2018.12.04.
- [4] J. G. Kim, “Establishment of the Role the Art Support Institu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24, no. 2, June 2019, pp. 167-186.
- [5] S. J. Han and C. H. Jung and J. S. Park, “A Comparative Study of Culture and Art Support Governance System: The Cases of the UK, France, and Korea”,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ffairs*, vol. 50, no. 2, April 2012, pp. 259-291.
- [6] J. H. Cheong, “A Study on Problems and solution of Korean Art Fairs”, *Journal of Digital Art Engineering & Multimedia*, Vol. 5, No. 2, December 2018, pp. 103-112. doi: 10.29056/idaem.2018.12.03.
- [7] Y. R. Hyun, “Government Visual Art Support Policy”, *Journal of The Communication Design*, vol. 60, July 2017, pp. 401-412.
- [8] C. M. Lee, “The Influence of Characteristics of Central Operating Body, Governance Structure and Management System on Performance in the Art Cente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vol. 27, no. 3, September 2015, pp. 817-850.
- [9] S. B. Chin, “Korean Culture and its Strategy for communicating with the World”,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Information Services Technology*, vol. 2, no. 1, June 2013, pp. 21-34.